

여성화, 끝나지 않는 기획

조선정**

『제인 에어』의 가정과 제국*

초록 이 논문은 살럿 브론테의 『제인 에어』에 나타난 여성주체의 유동성, 이동성, 침투성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주체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수행의 구성물로 반복 재현된 것임을 밝힌다. 가야트리 스피박의 탈식민주의 비평과 낸시 암스트롱의 신역사주의 가정소설론이 일구어 놓은 비판적 지평에서 출발하여, 두 비평이 교차하는 지점을 ‘여성화’의 맥락으로 재구성한다.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독해의 흐름을 수용하되 기존 비평에서 누락된 여성주체의 경계성에 주목해 여성화 논의를 비판적으로 심화한다. 『제인 에어』 특유의 문화적 혼종성을 조명하고, 가정과 제국의 경계가 상호침투하면서 개인주의자 주체가 재현되는 양상을 분석한다. 지배체제에 깊이 연루된 여성주체가 경계를 협상하고 탈주를 반복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제인 에어』를 페미니스트 고전으로 새롭게 읽기를 제안하며, 나아가 빅토리아시대 문학이 재현하는 국가, 여성, 제국의 관계를 새롭게 의미화하는 실마리를 제시한다.

주제어 제국주의, 탈식민주의, 주체, 여성화, 가정성

1. 들어가며: 여성주체화의 문제

70년대 영미권 문학비평의 참신하고 강력한 흐름 중 하나인 페미니스트문학비평은 여성주체의 형상을 발굴하는 것을 비평의 기조로 삼아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영문학 고전의 계보를 다시 쓴다. 선구적 비평서로 꼽히는 산드라 길버트(Sandra Gilbert)와 수전 구바(Susan Gubar)의 공저 『다락방의 미친 여자』(*The Madwoman in the Attic*)는 널리 알려진 대로 제목을 살려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1847년 소설 『제인 에어』(*Jane Eyre*)의 등장인물에 빗지고 있다. 가정교사 제인 에어, 집 주인 에드워드 로체스터(Edward Rochester), 그리고 그가 식민지 자메이카(Jamaica)에서 영국으로 데리고 와서 꼭대기 층에 감금해 둔 아내, ‘다락방의 미친 여자’, 버사 메이슨(Bertha Mason)의 삼각관계가 빚어내는 통속성은 『제인 에어』가 가진 대중적 소구력의 바탕이라 할 수 있는데, 길버트와 구바는 버사의 광기를 억압적인 사회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보고 버사를 “제인의 가장 진실하고 어두운 분신”으로 해석함으로써 통속성의 외피를 벗겨 내고 저항과 연대라는 여성문학의 속살에 집중하는 독법을 열었다.¹

『제인 에어』는 여성의 불온한 욕망에 휩진한 개연성을 부여하고 자칫 통속성에 매몰될 수 있는 남녀관계에 두터운 사회적 의미를 입힌 여성문학의 고전으로 등극한다. 생애주기에 따른 통과 의례의 모험과 위험을 두루 겪은 끝에 독립과 성숙에 이르는 여성서사는 “진보”(progress)를 구현한다.² 주인공 제인은 행위능력을 가진 ‘개인’이자 주권적 ‘주체’로서 빅토리아시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liberal individualism)의 총아로 자리매김한다. 『제인 에어』는 1980년대 신역사주의, 해체주의, 탈식민주의 등 비평이론의 전성기에 쏟아진 다양한 방법론의 세례를 통과하면서 바로 그 개인주의가 표상하는 근대성과 진보의 시간성 때문에 문제작으로 떠오른다. 특히 영국소설의 문화정치학을 해부하는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과 낸시 암스트롱(Nancy Armstrong)의 영향 아래 『제인 에어』 연구는 결정적인 변곡점을 맞

1 “Jane’s truest and darkest double,” Sandra Gilbert and Susan Gubar (1979),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 360.

2 Gilbert and Gubar, pp. 342-350.

이한다. 제국주의 공리를 재현하고 부르주아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 공모하는 빅토리아시대 가정소설로 재해석된 것이다. 이들의 비평이 활발한 논쟁을 촉발하면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동안 『제인 에어』는 여성문학의 매혹과 한계 그리고 문학비평의 정치성과 역사성을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전거 (locus classicus)의 지위를 굳혀 왔다.

이 글은 스피박과 암스트롱이 ‘성장’과 ‘진보’를 탈신비화하면서 일구어 놓은 비판적 지평에서 출발한다. 『제인 에어』는 여성주체의 재현을 ‘착한’ 여성과 ‘못된’ 여성으로 쪼개고 ‘착한’ 여성에게 서술의 전권을 부여하는 자서전 형식의 내적 논리에 충실하게 ‘못된’ 여성을 침묵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착한’ 여성에게 가정과 공동체의 가치를 대변하는 권위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배태한 근대성의 인종정치를 묵인하는 면모가 있음도 사실이다. 여성이 자율적 행위능력과 도덕적 권위를 획득하고 주체로 부상하는 이야기가 지배체제의 변화를 견인하는 대신 현상유지로 종결된다면 무엇을 위한 여성주체화인지 훑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스피박과 암스트롱의 영향력의 자장 안에서 숙성한 문제의식을 수용하되, 여성주체를 가정여성이라는 고정된 정체성에서 탈구시키고 경계에 걸친 유동적인 존재로 포착하는 브론테의 역동적인 필치에 주목하여 여성주체화의 의미를 보충하고자 한다.

여성주체화를 매개하는 인종과 계급을 각각 분석의 범주로 적극 활용하는 스피박과 암스트롱의 방법론은 『제인 에어』 연구의 표준으로 정착되었다. 각각 탈식민주의와 신역사주의 계열로 분류되어서 그 안에서 열광적으로 인용되고 참조되고 있음에도 그들의 선 굵은 글쓰기에 내장된 비약과 압축은 여전히 해설을 요청한다. 두 비평가는 서로를 참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성주체화의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 공유할 가능성에 착안한 후속연구도 거의 없다는 사실 또한 비평적 공백이라 할 만하다. 이런 결핍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또 그들의 비평을 통합적으로 재조명하여 회복적 읽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다. 두 연구가 각각 방대한

역사자료를 다루는데다 ‘제국주의’, ‘개인주의’, ‘가정 이데올로기’ 등 복잡한 개념사를 가진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개념을 둘러싼 논쟁에 개입하기보다는 두 비평의 교차와 중첩을 발굴하여 작품해석에 요긴한 구체적 쟁점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글을 풀어 가고자 한다.

이어질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스피박의 개인주의 비판을 따라가면서 가정성과 제국주의의 관계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암스트롱의 가정소설론을 해부하면서 가정여성이 부르주아 지배체제와 어떻게 협상하는지 살펴본다. 두 비평이 교차하는 지점을 ‘여성화’(feminization)의 맥락으로 재구성하고 그 함의와 한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여성화의 원심력으로 포섭되지 않는 여성주체의 유동성, 이동성, 침투성에 주목한다. 가정과 제국의 경계가 재설정되는 양상을 분석하면서 『제인 에어』 특유의 혼종성과 여성주체의 비결정성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여성주체화의 (불)가능성을 질문하고 경계를 사유하는 소설로서 『제인 에어』를 페미니스트 고전으로 새롭게 읽기를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한다.

2. 누가 말하는가?

영국문학이 ‘대영제국’의 국가적 사명을 재현하고 정당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탈식민주의문학비평의 통찰은 이제 거의 상식으로 통용된다. 식민지의 땅과 문화가 서구 제국주의의 문학적 상상력 속에서 비(非)영국, 비유럽, 비서구 영역으로 구축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3세계’(the Third World)라는 장소호명은 제국주의 재현문법을 응축한다. 이러한 ‘장소만들기’를 스피박은 “worlding”이라는 진행형 동사로 표현한다.³ 식민

3 Gayatri Spivak (1985), “Three Women’s Texts and a Critique of Imperialism,” *Critical Inquiry* 12(1), p. 243.

지배의 언어가 그려 낸 ‘제3세계’를 마치 원래부터 비영국, 비유럽, 비서구 영역의 정체성을 가진 공간인 양 자연화하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 인식론이다.

서구중심 인식론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탈식민주의는 여성주체 담론을 활성화하려는 페미니즘과 길항한다. 스피박은 페미니스트문학비평이 여성의 성장서사를 특권화해 온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3세계’를 발명해 내는 제국주의 재현의 정치학에 페미니스트비평이 어떻게 복무하는지 심문한다. 스피박에 따르면, 『제인 에어』에서 주인공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행보만을 읽어 내는 비평은 여성의 시련, 교육, 성장, 사랑, 결혼, 출산 등으로 이어지는 궤적을 근대적 자아, 독립적 개인, 성공한 여성의 보편적 생애사로 고양시키면서 거기에 스민 빅토리아시대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를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 제인은 “출산”(childbearing)과 “영혼만들기”(soul making)라는 두 개의 서로 얽힌 제국주의 사명을 완수하는 “개인주의자”(individualist) 여성주체로 그려진다.⁴ 서사의 표면적 열개는 결혼플롯이지만, 심층적으로는 제국주의 공리가 관철된다. 자메이카에서 영국으로 강제이주 당한 후 거의 비인간/동물로 전락한 버사는 제인의 주체화에 소모되는 타자로서, “식민지배자의 사회적 소명을 빛내 주기 위해 스스로 자해하는 토착민으로 만들어지는” 희생을 치른다.⁵ 자메이카에서 보낸 어린 시절, 영국 이주 후 감금생활, 최종적인 방화와 자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적은 제인이 일관되게 표상하는 영국적 여성성, 근대적 자아, 문명화 기획의 반대항에 놓인다.⁶

4 Spivak (1985), p. 244.

5 “the construction of a self-immolating colonial subject for the glorification of the social mission of the colonizer,” Spivak (1985), p. 251.

6 버사의 타자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다. 가령, 버사의 인종보다 계급에 주목하는 연구로는 Susan Meyer (1990), “Colonialism and the Figurative Strategy of *Jane Eyre*,” *Victorian Studies* 33(2), pp. 247–68; Elaine Freedgood (2006), “Souvenirs of Sadism: Mahogany Furniture, Deforestation, and Slavery in *Jane Eyre*,” *Ideas in Things*:

『제인 에어』 비평의 오랜 논쟁 중 하나는 썬 존(St. John)이 제인에게 인도의 선교사업에 동행하기를 강요하다가 실패하고 혼자 인도로 떠난 후 죽음을 맞이하는 결말을 제국주의에 대한 거절 내지는 비판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스피박은 썬 존의 인도 “영혼만들기” 서사가 제인의 가정서사에 “일종의 접선”처럼 지나간다고 짧게 언급하는데, 이는 『제인 에어』를 한층 정교한 제국주의 서사로 읽을 실마리를 준다.⁷ 썬 존의 인도 문명화 기획이 제인의 로체스터 갱생 기획에 스치듯 비껴 가는 것은 두 서사의 ‘거리’를 한껏 벌려 놓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상호의존적 얽힘을 부각한다. 이는 제국주의 인식론이 작동하는 방식의 알레고리나 마찬가지다. 제국주의는 문명과 야만, 자유와 복종, 종교와 미신, 지식과 무지 등 대립항 사이의 거리를 전제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 거리를 단박에 해소하려는 욕망을 내장한 자기생산 체제이다. 거리를 만들어 내고 또 지우기를 반복하되 거리를 인식의 계기로 보존함으로써 본토와 식민지의 차이를 영속화하는 것이다.

제국과 가정이 “접선”으로 얽히는 내적 구조에 버사의 자리는 없다. 제인과 버사의 위계를 뒤집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문제는 버사를 비인간으로 타자화할 뿐만 아니라 제인의 이중적 자아로 만들어 제인의 주체화 과정에 전유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스피박은 ‘제3세계’와 토착민의 재현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제출한다. 이어서 버사의 죽음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을 소설 너머, 예컨대 “제국주의 통치의 문서 보관소”에서, 특히 인도의 순장에 관한 기록물에서 찾는다.⁸ 버사를 자메이

Fugitive Meaning in the Victorian Nove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30-54. 한편, 버사의 광기, 음주, 방종 등이 총체적으로 여성의 ‘장애’(disability)로 그려지는 것에 주목한 연구로는 Elizabeth Donaldson (2012), “The Corpus of the Madwoman: Toward a Feminist Disability Studies Theory of Embodiment and Mental Illness,” *The Madwoman and the Blindman: Jane Eyre, Discourse, Disability* (ed. by David Bolt et al.), Columbus: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pp. 11-31.

7 “a sort of tangent,” Spivak (1985), p. 248.

8 “archives of imperialist governance,” Spivak (1985), p. 259.

카 여성과 인도 여성의 중첩된 형상으로 조각함으로써 스피박은 『제인 에어』 비평이 누락해 온 타자를 (온전한 복원을 약속하지 않는 신중한 방식으로) 추적한다. 스피박이 비슷한 시기에 집필한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Can the Subaltern Speak?)는 『제인 에어』를 본격 분석하지는 않지만 버사의 죽음을 상상적으로 대리보충할 법한 다양한 사료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우회로를 통해 ‘제3세계’ 여성의 재현 가능성에 천착한다.

순장에 참여하는 여성은 토착민의 민족주의 담론 안에서는 남편을 따라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미화되는 한편 제국주의의 계몽주의 담론 안에서 야만적인 풍습이 만들어 낸 희생양으로서 구조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상반되는 해석 중 어떤 것도 순장의 복잡한 역사적 실체와 의미에 가닿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순장을 따르거나 또는 따르려고 하다가 제국주의의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순장을 따르지 않기로 한 여성은 일정한 행위능력을 가진 주체로 재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아 있다. ‘제3세계’ 여성을 재현하는 일은 타자를 알 수 있는 주체로 만들어 고정시키는 것으로, 장소만들기의 일환으로 귀결되기 쉽다. 그런 의미에서 서발턴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할수록 더 알 수 없어지는 이질성을 가진 존재로서, 기존의 재현 체계로 다 포섭되지 않아서 다 알 수 없는 어떤 ‘차이’ 그 자체가 아닐까. 서발턴의 말을 듣거나 읽을 수 없지만 그 알 수 없음과 침묵을 포착할 수는 있다는 것이 스피박이 도달한 결론이다.⁹

자메이카 출신 버사의 죽음을 인도 여성의 순장에 관한 ‘잘못된’ 재현

9 스피박은 1988년 논문을 다른 논문과 통합하고 수정하면서 ‘서발턴은 말할 수 없다’는 진술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읽히기를 염려해 한결 신중한 어조로 서발턴의 재현 문제를 논의한다. Gayatri Spivak (1999),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Toward a History of the Vanishing Pres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p. 281-311. 스피박이 토착민의 침묵을 과장함으로써 오히려 침묵을 기정사실화한다고 비판한 논문으로는 Benita Parry (1987), “Problems of Current Theories of Colonial Discourse,” *Oxford Literary Review* 9(1/2), pp. 27-58.

의 맥락으로 끌고 와 독보적인 사유를 펼치는 스피박은 『제인 에어』가 서인도제도의 노예농장을 착취하는 삼각무역 체제에서 동인도회사 경영을 통한 인도 지배로 옮겨 가는 영국 제국주의의 전환기에 맞물리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제인 에어』에 나타난 제국주의의 역사성을 큰 틀에서 짚어 보게 한다. 나아가, 착취와 소외에 노출된 토착민의 복합적인 생존 경험을 한때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과제로 꺼안는 것이 탈식민주의문학비평의 궁극적인 지향임을 설득한다. 또한, 비평의 초점을 제인에서 버사로 옮기고 “제국주의 통치의 문서보관소”를 불러오는 연구를 통해 탈식민주의문학비평이 이후 ‘초국적 페미니스트 문화연구’(transnational feminist cultural studies)로 확장될 돌파구를 마련한다.¹⁰ 이 글에서는 『제인 에어』의 여성주체화 문제를 여성화의 틀에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여성 재현에 관한 스피박의 문제제기를 이어 갈 텐데, 비평의 초점을 버사에서 제인으로 다시 옮기기를 피하되 여성주체화의 모순적이고 분열적인 성격에 주목할 것이다.

곧 후술할 『제인 에어』 여성화 전략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점 두 가지를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제인의 영국(가정)서사와 씬 존의 인도(제국)서사가 “접선”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은 성별화한(gendered) 공사영역 분리에 조응한다. 씬 존은 자신의 소명이 “무지의 땅에 지식을 운반하고, 전쟁을 평화로, 노예상태를 자유로, 미신을 종교로 바꾸는” 일이라고 공표하는데, 제인은 그의 과업에 동참하기를 거절하고 가정여성으로 물러남으로써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 한다.¹¹ 이 거절이 얼핏 인도의 문명화/식민화에 대한 비판처럼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접선”으로 비껴 가는 두 서사의 ‘거리’가 의도한바, “내부의 평등주의를 얻는 대가가 바깥의 제국주의”라는 역사적

10 Caren Kaplan and Inderpal Grewal (1994), “Transnational Feminist Cultural Studies: Beyond the Marxism/Poststructuralism/Feminism Divides,” *Positions: Asia Critique* 2(2), pp. 430-445.

11 “of carrying knowledge into the realm of ignorance—of substituting peace for war—freedom for bondage—religion for superstition,” Charlotte Brontë (1847), *Jane Eyre* (ed. by Margaret Smi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374.

현실을 은폐하는 착시효과다.¹²

이와 연결되는 두 번째 논점은 여성 재현의 기준이 "개인주의자" 주체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근대 부르주아의 보편적 권리가 남성시민을 위한 것이고 여성의 참정권은커녕 재산권도 요원하던 19세기 중반의 역사적 맥락에서 여성을 '개인'으로 명명하기는 시대착오적이다. 차라리 여성은 '개인' 되기를 선망하는,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에 포획되기 좋은 '개인주의자'에 가깝다. 자유주의의 규율권력이 생산하는 근대주체는 바로 그렇게 자의식으로 충만한 내면세계를 가진 개인주의자다. 제인의 자서전은 감정을 통제하고 내면을 성찰하고 자존감을 지키느라 거의 '사디즘'에 육박할 정도로 자아를 단련한 개인주의자의 기록물이자 "근대적 자아를 위한 안내서"로 손색없다.¹³ 개인주의가 제국주의의 이념적 자원이라면, 개인주의자는 식민주의자와 토착민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보편적 주체모델이다.¹⁴ 제국주의가 개인주의자를 호명하듯, 자유주의에 올라탄 빅토리안 페미니즘 역시 개인주의자 여성주체를 요청한다.

3. 가정소설과 여성화

암스트롱에 따르면, 영국소설은 부르주아 가정여성을 구성해 내고 문화적 헤게모니를 창출하는 역사적 작업을 수행한다.¹⁵ 자기규율을 내면화

12 "price of egalitarianism at home in imperialism abroad," Bruce Robbins (2003), "Soul Making: Gayatri Spivak on Upward Mobility," *Cultural Studies* 17(1), p. 18.

13 "manual for the modern self," Freedgood (2006) p. 46.

14 Jennifer Pitts (2005), *A Turn to Empire: The Rise of Imperial Liberalism in Britain and Fr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23-162.

15 가정소설론은 여성을 억압된 희생자로 전제하지 않고 여성주체의 담론적 구성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비판적 논평으로는 Amanda Anderson (2000), "The Temptations of Aggrandized Agency: Feminist Histories and the Horizons of Modernity," *Victorian*

한 주인공이 가정공간의 유능한 관리감독자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1810년대에 제인 오스틴(Jane Austen) 소설에서 나름의 완성도에 이른 후 이렇다 할 가정소설이 나오지 못한 것은 산업화의 진전과 정치혁명의 실패라는 역사적 고비를 넘으면서 중간계급의 보수화가 강고해졌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 1840년대 후반 ‘미친’ 여자주인공들이 대거 등장하는 시기에 『제인 에어』는 “악마적 여성을 불러들인 후 처벌하고 추방하는” 전략을 세련되게 구사함으로써 가정소설의 진화를 증명하는 대표작으로 부상한다.¹⁶ 여성의 역사, 성의 역사, 소설의 역사, 영국사회사를 부르주아의 문화권력을 고리로 통합하는 암스트롱의 연구는 가정소설을 근대주체를 생산하는 일종의 행위자로서 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가정여성의 미덕이 귀족계급은 물론 점점 노동계급과도 확실히 차별화하는 강력한 도덕적 자산이 되어서 역사적으로 부르주아 지배질서를 구현하는 실질적인 동력이 된다는 논지를 설득력 있게 개진함으로써 암스트롱은 소설, 젠더, 정치 사이의 복잡한 짜임새를 해부하는 것을 비평의 당면과제로 정착시킨다.

규율된 심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사회적 권위를 획득하기 시작한 중간계급 여성이 가정을 비롯한 사적 영역을 관장함으로써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을 생산하는 주체가 되는 과정은 여성화와 정확하게 포개진다. 암스트롱은 여성의 문화자본이 서사의 동력이 되는 장르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까지 미국 뉴잉글랜드에서 영국으로 수입되어 크게 유행한 포로서사(captivity narrative)를 꼽는다.¹⁷ 인질로 납치된 여성의 극심한 공포감과 짐으

Studies 43(1), pp. 43-65; Chris Bossche (2005), “What Did *Jane Eyre* Do?: Ideology, Agency, Class and the Novel,” *Narrative* 13(1), pp. 46-66.

16 “bringing forth some monstrous woman to punish and then banish from the text,” Nancy Armstrong (1987), *Desire and Domestic Fiction: A Political History of the Nov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165.

17 포로서사는 영국에서 미국 뉴잉글랜드로 이주한 목사의 아내 메리 롤란드슨(Mary Rowlandson)이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납치되어 11주 동안 끌려다니다가 인질 협상 끝에 풀려난 후 1682년에 발표한 회고록을 필두로 널리 유행한 장르다. Nancy Armstrong

로 돌아가려는 열망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포로서사는 가정소설의 골격을 초기 형태로 함유한 장르로 볼 만하다. 포로서사가 하느님에게 기도하면서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신심을 주제로 삼아 미국이라는 낯선 땅을 집이자 국가로 만들려는 ‘상상의 공동체’ 기획에 부응한다는 점도 영국 가정소설이 가정공간을 이상화하고 동질화하는 경향에 조응한다. 포로서사의 맥락에서 『제인 에어』는 한층 흥미롭다. 소설 곳곳에 감금과 탈주의 모티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도 하거니와, 집 없는 고아가 “나쁜 엄마, 나쁜 선생, 나쁜 구혼자, 나쁜 사촌이라는 방해물을 극복하고” 자신과 닮은 사람을 찾아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제인이 보유한 문해력, 교양, 도덕, 취향 등 총체적인 문화자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¹⁸

문화자본을 발판으로 여성화를 견인하는 주체가 ‘포로’라는 설정은 의미심장하다. 포로서사의 매력은 바로 죄 없이 포로가 된 ‘희생자’가 그 희생자 위치의 부정성을 지배력의 지렛대로 전환하는 데에 있다. 암스트롱이 지적하다시피, 흥미롭게도 제인은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탄탄한 문화자본을 획득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동시에 잃어버린 지위와 재산과 권력을 기어코 회복할 것처럼 그려진다. 이는 지배층의 낡은 관습과 부패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새로운 가치를 설파하는 여성주체가 실상 지배체제의 바깥에서 내부로 진입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제인은 지배체제의 무고한 피해자와 맹렬한 비판자였다가 어느새 충실한 대변자가 된다. 이런 겹침, 미끄러짐, 침투성은 주체의 실력과 역량을 특권화함으로써, 즉 “반대와 비판의 역량”을 개인화함으로써, 공동체의 구조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전망할 수 없게 만든다. 포로서사에 내장된 타협성은 “한때 문화의 자율성과 연속성을 위협한다며 밀쳐둔 바로 그것을 수용해 중화하

(1998), “Captivity and Cultural Capital in the English Novel,” *Novel: A Forum on Fiction* 31(3), pp. 373-398.

18 “surmounting the obstacles posed by bad mothers, bad teachers, bad suitors, and bad cousins,” Armstrong (1998), p. 387.

는” 근대 부르주아 헤게모니의 요체다.¹⁹

암스트롱은 『제인 에어』가 보여주는 타협성이 바로 영국 중간계급의 ‘실패’이자 지속가능한 헤게모니의 근원이라는 논지로 과감하게 비약한다. 중간계급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가는 변혁의 청사진을 그리는 대신 주변부에서 체제를 비판하는 행위자를 가정여성의 이름으로 포섭함으로써 계급갈등의 해결을 미루는 특유의 타협적 방식으로 지배력을 연장한다는 것이다.²⁰ 말하자면, 제인은 ‘내부자’의 자리를 꿰찬다. 『제인 에어』에서 제인이 관상을 보고 또 지독하게 ‘닭음’에 집착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서로를 알아보는 능력을 바탕으로 상상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문화자본의 가장 중요한 쓰임새이다. ‘실패’의 논리는 가정소설이 구축하는 문화권력의 한계로도 투영된다. 가정여성의 주체화는 계급질서의 재편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는 지배전략의 알리바이가 된다. 여성화의 최대치는 사회의 위기를 “여성의 순수함과 어린아이의 안전과 기본적인 당위인 가정의 성스러움을 획득하려고 싸우는 문화전쟁의 한복판”으로 상상하도록 유도할 뿐, 권력의 근거를 심문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²¹

여성화에 대한 이런 고민은 애초에 여성화가 문학비평의 어휘로 등재

19 “the capacity for opposition and critique,” “embrace and neutralize precisely what they have designated as dangerously opposed to their autonomy and continuity in time,” Armstrong (1998), p. 390.

20 암스트롱이 참조하는 사이먼 건(Simon Gunn)의 분석에 따르면, 중간계급은 귀족이나 지주계급의 경제적 이익과 타협하느라고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했다. 이를 암스트롱은 중간계급이 지나치게 내부의 상호의존과 공생관계에 치중한다고 풀이한다. Simon Gunn (1986), “The Failure of the Victorian Middle Class: A Critique,” *The Culture of Capital: Art, Power and the Nineteenth-Century Middle Class* (ed. by Janet Wolff and John Seed),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p. 17-43.

21 “under condition of cultural warfare, in which the purity of its women, the safety of its children, and the sanctity of its basic unit, the household are up for grabs,” Armstrong (1998), p. 395.

되는 계기를 제공한 앤 더글러스(Ann Douglas)의 논의에도 (비판의 방향이 전도된 형태로나마) 감지된다. 더글러스는 여성작가가 쓴 감상주의 가정소설의 폭발적인 인기를 탄식하면서 문학시장의 지각변동을 소비주의 득세와 맞물린 지성의 퇴조로 평가한다.²² 여성적인 것이 미화되든 비하되든, 여성화는 젠더권력의 재분배라는 구조적 변화를 불러오기보다는 그런 담론이 재생산되면서 여성적인 것의 의미를 계속 재구성하도록 유도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를 빌려 말하자면, 가정소설은 여성이 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권력 이동이 이루어진 양 보이게 하는 담론의 효과에 의존한다. 여성적인 것을 계속 생산하고 또 영속화하는 동안 젠더이분법의 틀은 변하지 않는다. 여성화에 의해 그 틀은 더 강화되지만, 그것을 은폐하는 것 또한 여성화이다. 가정소설이 여성을 주체로 호명하여 지배체제로 끌어들이는 곳에서 한마디로 “좋은 남자를 찾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된다.²³ 여성화는 ‘나쁜 남자’의 재사회화를 떠맡은 가정여성의 “출산”과 “영혼만들기” 노동으로 수렴된다.

암스트롱이 시차를 두고 제출한 몇 편의 『제인 에어』 비평에서, 가령 여성화가 서구 백인 남성을 보편자로 강화하고 “서구 문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인 원리를 강화한다는 지적은 확실히 스피박의 언어와 공명하는 대목으로 꼽을 만하다.²⁴ 물론 암스트롱은 가정소설의 문화적 상상력을 백인여성의 인종적 특권이라는 틀에서 분석하는 일은 탈식민주의비평에 맡기고 “규범적 여성성의 화신”으로서의 제인 에어라는 인물의 역사성 분석에 일관되게 몰입한다.²⁵ 스피박

22 Ann Douglas (1977), *The Feminization of American Culture*, New York: Avon Books, pp. 121-164.

23 “a good man is hard to find,” Nancy Armstrong (2005), *How Novels Think: The Limits of Individualism from 1719-190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 79.

24 “outside the limit of Western culture and therefore less than human,” Armstrong (2005), p. 103.

25 “the feminine norm incarnate,” Nancy Armstrong (2016), “One or Several Jane Eyre?,”

에게 『제인 에어』가 버사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문제적 텍스트라면, 암스트롱에게 『제인 에어』는 제인의 성취를 당연시하는 문제적 텍스트이다. 이들은 공히 인종화, 타자화, 여성화를 경유하지 않는 주체화가 가능한지 묻는다. 스피박은 인종주의적 전제를 전복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암스트롱은 남성성의 파산을 감추는 서구 모더니티의 모순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각각 주체화의 이데올로기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제인 에어』를 다르게, 새롭게, 깊게, 역사적으로 읽는다. 요컨대, 여성주체화는 자연스러운 역사적 진보가 아니라 여성화의 효과로 구축된 것이다.

4. 제국의 가정, 가정의 제국

지금까지 『제인 에어』를 더 이상 제인의 성공신화로 읽을 수 없게 된 비평 지형의 변화를 여성화의 틀로 재구성했다. 여성화는 젠더권력의 차이를 성차로 환원하여 이분법적 젠더구조를 고착시키고 바로 그런 성별화가 사회적으로 포용될 수 있다는 환상을 재생산한다. 그 환상은 남성중심 젠더권력을 보충하고, 여성을 지배체제를 안정화하는 데 연루시킨다. 중요한 것은 여성화가 결코 일회적이거나 완결적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여성화를 반복 기입하는 무대라 할 가정공간은 여성주체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먼저 가정성 담론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역사가들은 가정성 개념을 ‘영역 분리’(separate sphere) 틀로 설명한다. 1840년대를 거치면서 가부장제와 기독교 가치관에 바탕을 둔 젠더 인식이 공적 공간에서 수행하는 노

Victorian Review 42(2), p. 217. 이런 맥락에서, 최근 암스트롱은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의 인구론의 영향 등으로 빅토리아시대 국가의 경제설정과 인력관리를 가정여성이 떠맡게 된 것을 분석하면서 제인을 “생명정치를 아는 여주인공”(biopolitical heroine)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Nancy Armstrong (2012), “Gender Must Be Defended,” *South Atlantic Quarterly* 111(3), pp. 529–547.

동의 세계와 사적 공간에서 형성되는 도덕 감정의 세계를 분리하고 또 철저하게 성별화하는 가정 이데올로기로 굳어졌다는 것이다.²⁶ 한편, 여성의 교육과 사회진출을 옹호하는 비주류 교파의 전통이 면면히 이어졌고 ‘가정의 천사’라는 표상이 여성을 속박하면 할수록 여권 옹호 담론이 정당화의 계기를 축적했다고 본다면 영역 분리가 부르주아 가족구성의 원리로 느슨하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빅토리아시대 젠더관계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틀로는 부족하다는 반론도 유력하다. 가정 이데올로기가 “이미 획득된 공적 자유에 대한 방어적이고 무력한 반응”이라든가 공적 영역에서 가시화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젠더 공포”를 반영한다는 수정주의적 해석은 가정성과 여성억압의 관계를 결정론적으로 단순화하지 않으면서 여성주체화를 재의미화하려는 시도와 닿아 있다.²⁷

영역 분리가 확고한 현실이라기보다 규제적 담론으로 기능하는 국면을 염두에 둘 때, 가정성은 경계가 확정적인 부르주아 가정공간의 특성을 기술하는 말이라기보다 그 경계가 협상되면서 가정이 구성되는 역동을 의미한다. 가정이란 낯선 것의 위협이 투영된 개념으로서, 애초에 그 경계가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인 상상의 공간이 아닐까.²⁸ ‘가정적인 것’(domestic)이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과 ‘국내’라는 공적 영역을 동시에 가리키는 데서 단적

26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남성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여성의 본분이라는 원칙, 그리고 유희와 죄에 노출되는 일(work)의 영역에 대조적으로 가정 영역은 속죄와 정화를 추구한다는 믿음이 영역 분리의 토대다. Leonore Davidoff and Catherine Hall (1987), *Family Fortunes: Men and Women of the English Middleclass 1780-185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73-192.

27 “a defensive and impotent reaction to public freedom already won,” Amanda Vickery (1993), “Golden Age to Separate Spheres?: A Review of the Categories and Chronology of English Women’s History,” *The Historical Journal* 36(2), p. 414; “gender panic,” Ben Griffin (2012), “The Domestic Ideology of Victorian Patriarchy,” *The Politics of Gender in Victorian Britain: Masculinity, Political Culture and the Struggle for Women’s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39.

28 Amy Kaplan (1998), “Manifest Domesticity,” *American Literature* 70(3), pp. 581-606.

으로 드러나듯이, 가정성은 자국 영토와 낯선 식민지의 관계맺음이라는 제국주의 시대 당면과제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된다. 바깥세계와의 관계에 의해 그 경계가 계속 재설정된다는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식민지배는 낯선 타자가 유령처럼 떠돌며 가정/국가의 경계를 교란한다는 근대적 상상 속에 내재된 경향성의 발현이 아닐까. 예컨대, 영국성(Englishness)이란 제국주의 지배의 토대, 전제,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물이자 전리품이다. 이런 접근은 가정의 일상과 국가의 통치가 모두 제국주의에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 제국주의 없이 영국의 삶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강력하게 환기한다. 쏘넬드 홀(Thornfield Hall)의 꼭대기 층 다락방이라는 가장 가정적이고 내밀한 공간에 제국에서 은밀하게 들여온 가장 낯선 존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예외적인 일탈이 아니라 현실의 증상이자 징후이다. 가정과 제국은 연결되고 뒤섞이고 침투하고, 『제인 에어』는 그렇게 구성된 세계의 폭력의 연대기다.

『제인 에어』의 압도적인 특징은 건물, 가구, 옷감, 음식, 소품 등을 집요하게 묘사하여 가정공간의 물질성을 실감나게 복원하는 것이다. 당대 영국의 상업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경영의 열매를 상징하기라도 하듯이, 가정공간은 이국적인 문물과 기표의 포화상태다. 이를테면, 게이츠헤드 홀(Gateshead Hall)의 침실에는 서인도제도에서 벌목하여 가공한 “마호가니” 원목가구와 프랑스 산 “마르세유 침대보”가 있다.²⁹ 쏘넬드 홀의 식당에는 “터키 산 양탄자”가 깔려 있고, 응접실의 대리석 난로 위에는 “보헤미아에서 온 유리잔”이 놓여 있다.³⁰ 게다가, 아델(Adele)의 프랑스어 수다는 조금도 억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영어와 섞여 쏘넬드 홀의 문화적 정체성을 흐린다. 철 지난 오랜 가구와 유물을 보관하는 저택의 삼층만이 그나마 영국적인 흔적을 간직한다. 꼭대기 층의 다락방은 마치 ‘푸른 수염의 성’을 닮은

29 “mahogany,” “Marseilles counterpane,” Brontë, p. 13.

30 “Turkey carpet,” “Bohemian glass,” Brontë, p. 104.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공간과 같아서 쏜필드 홀의 문화적 혼종성을 재차 강조한다. 한마디로, 가정공간은 고유한 장소성을 잃은 물건들, 물화된 기표들이 출렁이는 무국적, 다문화, 세계화의 아카이브와 같다.

이질적이고 절충적이고 혼종적인 가정공간은 반복적으로 재현됨으로써 지속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가정공간을 점유한 상류사회 구성원들의 피부색을 어둡고 칙칙하고 검다고 묘사하는 것은 반복 재현의 사례다. 존 리드(John Reed), 브로클허스트(Mr. Brocklehurst), 로체스터는 검은 피부의 소유자로 그려진다. 로체스터의 애인 블랜치 잉그럼의 외모는 (인도산 천으로 어깨에 터번을 두른 모습으로 “제국의 위엄”을 뽐내는 모친과 함께) 눈동자와 머리와 피부가 “검은” 색조를 띠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³¹ 검은 피부를 부각시키는 재현 전략은 문화적 전유(appropriation)에 해당한다. 상류사회 내부에서 검은색을 구분의 표식으로 반복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검은색이 연상시키는 노예무역과 노예노동의 현실을 은폐하고 지운다.³² 또한, 가정공간의 피부색 배치를 흑백으로 구획지음으로써 그들이 내부적으로 동질적일 거라는 암묵적인 전제를 위반하고 가정공간에 이질적인 것들이 공존하도록 배치한다. 식민지와 가정/국가의 ‘거리’를 지우는 효과는 지배계급 내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또 한 번 전유된다.

여성화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젠더권력을 장악한 남성이 필요하다. 로체스터는 가정공간의 혼종성을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 “헤라클레스”, “삼손”, “불칸”, “술탄” 등의 온갖 비유는 영국신사의 전형성과 동떨어진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그는 저택 관리를 먼 친척뻘인 가정부에게 위탁하고 여행자로 세계를 떠돌며 온갖 경험을 쌓은 덕분에 역사와 세계지리와 지역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인물이다. 게다가 그는 이탈리아 오페라를 즐겨 부르는 취향에다 “로마에서 이탈리아 사기꾼에게 구입한 몰약”이나 “하나

31 “imperial dignity,” Brontë, p. 172; “dark,” Brontë, p. 173.

32 Meyer (1990), pp. 261-262.

바 향”이 나는 쿠바 담배 같은 기호품을 즐긴다.³³ 심지어 그와 동행하는 사냥개는 “뉴펀들랜드 품종”이고 그가 타는 말은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이름을 딴 “메즈루르”로 불린다.³⁴ 나아가 토종식물과 외래종이 뒤섞인 쏘넬드 홀의 과수원에서 그는 “서인도제도 곤충”을 닮은 커다란 나방을 알아 보며,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자라는 “유파스나무”를 언급한다.³⁵ 그가 참조하고 인용하는 자원은 신화, 종교, 역사, 예술, 지리를 무릅없이 가로지른다.

시공간의 제약을 넘나드는 그의 방대한 어휘와 현란한 수사는 모든 것을 납작하고 동질적이고 동등하게 “알 수 있는 것”(knowable)으로 만든다.³⁶ “모든 장소와 문화를 동일한 시간으로 환원하여 비교가능하게 만드는” 일종의 인식론적 특권이자 자유의 표현이다.³⁷ 이는 그가 구현하는 특유의 연극성으로도 잘 드러난다. 쏘넬드 홀의 응접실에서 집안 소품을 이용하여 무언극 놀이를 할 때, 그는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을 연기하고 우물가에서 터번을 쓴 이슬람교도로 변신했다가 마지막으로 지중해의 해적 복장을 한 죄수를 연기한다. 그리고 나중에 떠돌이 집시노파로 분장하여 손님들을 감쪽같이 속여 넘기기까지 한다. 그의 탁월한 대화술, 변장술, 연기력은 그가 참조와 인용의 자유, 자기 재현의 자유, 상상의 자유를 거의 무제한으로 누리 는 것과는 부합한다. 쏘넬드 홀의 몰락은 한편으로는 그런 자유, 과잉, 유희, 초과에 대한 처벌로서 모종의 “규율된 이질성”에 대한 지향을 시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의 경계가 얼마든지 재조정되고 재구축될 수 있는

33 “cordial at Rome, of an Italian charlatan,” Brontë, p. 214; “Havannah incense,” Brontë, p. 141.

34 “Newfoundland dog,” Brontë, p. 116; “Mesroure,” Brontë, p. 166.

35 “West Indian insect,” Brontë, p. 249; “upas-tree,” Brontë, p. 300.

36 Patricia McKee (2009), “Racial Strategies in *Jane Eyre*,” *Victorian Literature and Culture* 37(1), p. 79

37 “all places and cultures become comparable by being reducible to the same set of temporal terms,” Saree Makdisi (1998), *Romantic Imperialism: Universal Empire and the Culture of Moder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77.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³⁸

5. 경계를 가로지르는 몸

제인은 로체스터의 자유에 홀린 듯 끌리며, 두 인물은 즉각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사이로 발전한다. 낮선 지형을 배경으로 삼아 이질적인 형상들을 병치한 독특한 구성을 선보이는 제인의 수채화는 로체스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소통의 촉매로 작용한다. 이들은 낮선 것들을 상상적으로 수집하여 조립하고 재구성하고 전용하는 화법을 공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코 동등하지 않다. 로체스터의 자유는 제인을 유혹하는 만큼이나 위협한다. 권력의 격차가 드러나는 장면은 무수히 많지만, 특히 소설의 서두를 장식하는 유명한 독서 장면에서 제인의 주변적이고 애매한 지위를 읽어낼 수 있다. 『영국 새 백과』(*History of British Birds*)라는 평범한 책 제목이 촉발하는 기대가 무색하게도, 제인은 “라플란드, 시베리아, 스피츠버겐, 노바 젤블라,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라는 낮선 지명에 사로잡힌다.³⁹ 달밤 바닷가의 버려진 배, 교회, 도둑, 악마, 교수대 등 일관성 없이 잡다한 삽화로 채워진 책을 반쯤은 장식용으로 들고서 제인은 창문턱에 올라앉은 채 커튼으로 몸을 숨긴 모습으로 등장한다. 응접실도 아니고 식당도 아닌 조찬실이라는 어중간한 공간, 내부도 외부도 아니지만 내부와 외부에 다 밀착된 창가 자리,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안 읽는 것도 아닌 상상력 충만한 독서법, 몸을 숨기고 있지만 곧 발각될 것 같은 정중동 상태 등 이 장면의 절묘한 설정은 제인을 경계에 걸친 존재로 또렷하게 각인한다. 자유가 아예 없지도 충분하

38 “regulated heterogeneity,” James Buzzard (2005), *Disorienting Fiction: The Auto-ethnography Work of Nineteenth-Century British Novel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197.

39 “Lapland, Siberia, Spitzbergen, Nova Zembla, Iceland, Greenland,” Brontë, p. 8.

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 제인의 주체화는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상황구속적이면서도 임기응변을 허용하는 어떤 중간적 상황에서 출발한다.

제인이 차례로 거쳐 가는 가정공간은 영국제국의 복사본이다. 외가에 입양된 제인은 전혀 섞이지 못하고 “기질과 역량과 성향이 다 반대되는 이질적인 존재”로 낙인찍힌 채 유년기를 보낸다.⁴⁰ 제인은 ‘무임승차’의 원죄를 저지른 이방인이자 거주할 자격, 즉 성원권이 없는 침입자에 불과하다. 소설을 여는 첫 장면에서 제인은 존 리드의 폭력에 반항하며 그를 “노예주”라 부르는데, 이는 게이츠헤드 홀에서 벌어지는 타자화, 예속화, 노예화를 정확하게 드러낸다.⁴¹ 가정공간과 영국제국의 작동원리, 언술 체계, 구조는 흡사하다. 가정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을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구성원을 다스리는 방식과 동일하다.

흥미롭게도, 제인이 자신을 노예에 동일시하는 이 감각은 나중에 제인이 비싼 옷을 사주려는 로체스터와 실랑이하는 대목에서 다시 돌아와 미묘하게 변주된다.

“이 작은 영국아가씨를 터키 왕의 아내들과 바꾸지 말아야지. 사슴 빛깔 눈동자를 가진 요정처럼 생긴 그들 전부를 준다 해도!”

동양의 비유가 또 나를 건드렸다. “내가 왕의 아내 자리에 있다면 거기서 당신을 조금도 봐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러니 나를 아내 무리에 해당한다고 여기지 말아요. 그런 쪽으로 상상하려거든 지체하지 말고 당장 이스탄불의 시장으로 달려가면 되겠네요. 여기서 맘껏 쓰지 못해서 안달한 것 같던 그 돈으로 대규모 노예구매를 하든가요.”

“내가 그렇게 많은 몸 덩어리와 그렇게 모인 까만 눈동자들을 사려고 흥정하는 동안 당신은 뭘 할 건데요, 자넨?”

40 “a heterogeneous thing, opposed to them in temperament, in capacity, in propensities,” Brontë, pp. 15-16.

41 “slave-driver,” Brontë, p. 11.

“나는 노예가 된 그들에게 자유를 설파하는 선교사로 진출할 준비를 해야죠. 그들 중 당신의 아내인 여자들도 있을 거잖아요. 난 아내들이 모인 그곳에 들어가서 반란을 일으킬 거예요.”⁴²

제인은 “동양의 비유”에 발끈하지만 로체스터가 사들일 아내들/노예들이 머무는 여성공간에 ‘침투’하여 “반란”을 이끌겠다는 말로 그 불편한 비유를 자기재현에 동원한다. 남성권력에 저항하고, 여성동성사회의 연대감을 피력하고, 또 계몽과 개혁을 표방하는 자신을 상상하며 동양여성의 처지에 재빠르게 감정이입하는 동시에 그들을 가르치고 선동하는 자리에 자신을 대입함으로써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그들을 타자화하는 이중적인 감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듯 제인은 권력관계의 스펙트럼에서 상충하는 여러 위치들을 상상적으로 경험한다. 제인에게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으며 고정적이지 않다.

노예이면서 노예가 아니기도 한 제인의 중간적 정체성은 가정교사라는 직업 특유의 이중성으로 한결 복잡해진다. 가정교사는 부분적으로 가정사를 돌보지만 가정에 소속되지 않는 임금노동자이자 “이론적으로는 영역 분리의 자연스러움을 수호해야 하지만 그 차이의 붕괴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경계를 교란한다.⁴³ “저주받은 족속”이라는 낙인은 가정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드러내는 동시에 경계에 걸친 분열적 정체성의 취약함을 함축한다.⁴⁴ 제인은 가르쳐야 할 시골 여학생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들이 구사하는 지역 사투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의 궁핍하고 조야한 환경으로 자신의 삶

42 Brontë, p. 269.

43 “the very figure who theoretically should have defended the naturalness of separate spheres threatened to collapse the difference between them,” Mary Poovey (1988), “The Anathematized Race: The Governess and *Jane Eyre*,” *Uneven Developments: The Ideological Work of Gender in Mid-Victorian Englan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127.

44 “anathematized race,” Brontë, p. 177.

이 곤두박질친 듯 좌절하다가 곧 “이렇게 허름한 차림새의 농투성이 아이 들이 최고의 신사 혈통의 귀한 자제들만큼 훌륭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자신을 다독인다.⁴⁵ 이 장면은 제인이 사회적 구분과 경계를 날카롭게 의식한다는 점, 그리고 동일시와 거리두기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자신의 주체 위치를 협상한다는 점을 예시한다. 가정여성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지식과 교양의 습득, 자기규율, 교육과 교화 등 여성주체화의 궤적은 가정교사의 자질로 요구될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제국주의 문명화 기획에도 요구된다. 자신을 돌보는 것, 가정을 관리하는 것, 낯선 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모두 안과 밖의 경계와 협상하는 일이고, 따라서 오염과 침투와 변화의 상호관계성을 체현하는 일이다.⁴⁶

제인의 경계성에서 나오는 제한된 자유는 소설 초반 붉은 방에 감금되었다 풀려난 후 회복기를 가지는 장면에서 그 의미가 증폭된다. 제인은 기운을 차리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평소에 탐독하던 『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를 다시 보는데 문득 흥미를 잃고 “거인은 무서운 귀신이고, 난쟁이는 악의적이고 두려운 도깨비이고, 걸리버는 정말 무섭고 위험한 지역을 헤매는 외로운 방랑자”라며 실망한다.⁴⁷ 『걸리버 여행기』의 소인국과 거인국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섭렵하는 즐거움은 사라지고, 이제는 붉은 방 사건이 남긴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며 『걸리버 여행기』를 멀리한다. 이런 심경의 변화에서 제인의 과거, 즉 낯선 땅을 탐험하는 어린 여행자의 감각을 가지고 『걸리버 여행기』의 풍경을 소화하면서 집과 세계 사이의 ‘거리’를 지우는 독서법에 탐닉했던 과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제인은 낯선 곳을 여

45 “I must not forget that these coarsely-clad little peasants are of flesh and blood as good as the scions of gentlest genealogy,” Brontë, pp. 358–359.

46 이 장면을 혐오감정을 다루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연결한 논의로는 Zachary Samalin (2021), *The Masses Are Revolting: Victorian Culture and the Political Aesthetics of Disgus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 89–94.

47 “the giants were gaunt goblins, the pigmies malevolent and fearful imps, Gulliver a most desolate wanderer in most dread and dangerous regions,” Brontë, p. 21.

행하며 기이한 존재들을 바라보는 즐거움의 감각을 자연스럽게 습득한 어린아이였던 것이다. 『걸리버 여행기』가 “사실”을 다룬 책이라서 좋아했다는 고백은 의미심장하다.⁴⁸ 게이츠헤드 홀의 유년기는 한편으로는 자격 없는 이등시민으로 멸시당하거나 학대받는 노예로서 처절하게 반항하는 삶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부로 내몰린 처지에서서나마 『영국 새 백과』나 『걸리버 여행기』 같은 책에 접근함으로써 게이츠헤드 홀/영국 바깥의 낯선 세계를 즉각 감각하고 즐길 수 있는 제국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몫을 누리는 삶이었다. 『걸리버 여행기』의 재미가 사라지는 순간은 더 이상 순진한 여행자의 쾌락을 누릴 수 없어진 때, 즉 게이츠헤드 홀을 떠날 시간이 다가옴을 암시한다. “어린이의 호기심과 위험한 동일시에 대한 지독하고 영원한 처벌”이든, 또는 언어화할 수 없는 본능적인 각성이든,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이 깊이 연루되어 있던 게이츠헤드 홀의 폭력적 세계와 단절할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⁴⁹

제인의 여정은 이질적이고 분열적이고 혼종적인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와 경계를 교섭하는 시도로 점철된다. 거기에는 유사죽음이나 대리죽음이 수반된다. 붉은 방에 감금되어 죽음을 경험한 트라우마를 안고 게이츠헤드 홀을 떠나고, 로우드(Lowood)에서 단짝 친구 헬렌 번즈(Helen Burns)의 죽음을 견디고, 버사의 존재를 알고 난 후 죽을힘을 다해 쏜필드 홀을 떠나고, 또 한 번 죽을힘을 다해 썬 존의 청혼을 끊어 낸다. 그렇게 목숨과 맞바꾸듯이 절박하게 단절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저항하는 지배체제의 폭력에 영원히 연루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한 듯이 말이다. 더 이상 『걸리버 여행기』의 재미를 즐길 수 없어지는 것, 영국 신사계급 가문의 부를 확장

48 “fact” Brontë, p. 21.

49 “permanent punishment for the child’s curiosity and her dangerous identification,” Cora Kaplan (1996), “‘A Heterogeneous Thing’: Female Childhood and the Rise of Racial Thinking in Victorian Britain,” *Human, All Too Human* (ed. by Diana Fuss), New York: Routledge, p. 185.

하기 위해 자메이카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계약결혼의 파국을 한탄하며 모든 책임을 버사에게 돌리는 로체스터를 향해 “그 불행한 여인에게 너무 가혹해요.”라고 되받아치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그에게 끝까지 그의 몫의 책임을 지우는 것, 썬 존이 자연의 “입법자, 정치가, 정복자”가 될 운명이라 결코 좋은 남편이 될 수 없다고 결연하게 깨닫는 것, 이 장면들은 제인이 자기도 모르게 깊이 연루된 상황을 빠져나오려는 필사의 노력을 담아낸다.⁵⁰ 제인은 거쳐 가는 공간마다 자신이 저항하는 것에 단단히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단절을 시도하기를 반복한다. 단절은 거의 죽을 각오와 극한의 고통을 요구하거나 또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대체된다. 제인이 머무는 가정은 제국주의 폭력에 물들지 않은 적 없다. 노예, 피해자, 가정여성, 페미니스트, 개인주의자, 제국주의자, 제인은 이 모든 정체성과 협상하며 완결적인 여성화를 지연시킨다.

6. 결론을 대신하여: 여성(주체)화의 끝나지 않는 기획

지금까지 『제인 에어』가 재현하는 가정/국가, 여성, 제국의 관계를 지배질서에 대한 저항이나 순응의 이분법으로 귀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경계성의 맥락에서 조명했다. 여성주체는 권력관계의 스펙트럼을 가로지르면서 가정과 제국의 경계를 재설정한다는 것, 그 과정에 깊이 연루된 여성주체는 탈주를 반복한다는 것을 읽어 내고자 했다. 제국주의는 가정/국가를 계속 확장하여 안과 밖의 경계를 지우고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일이고 교육과 계몽과 재생을 목적론적으로 강조하면서 문명의 경계를 세우고 내부의 갈등이나 외부의 저항을 관리감독하여 하나의 세계를 정당화하는 기획이다.

50 “you are inexorable for that unfortunate lady,” Brontë, p. 301; “her lawgivers, her statesmen, her conquerors,” Brontë, p. 393.

여기에는 정복할 낯선 땅을 계속 발명해야 하는, 경계를 만들었다가 지우기를 반복해야 하는 역설이 있다. 이동성, 혼종성, 유동성은 제국주의적 삶의 조건이자 결과다. 자유를 만끽하고 또 전락하는 로체스터와 다르게, 제인은 경계를 넘나드는 자신을 그 세계로부터 끊어 내는 단절과 탈주를 반복하면서 그 경계가 영원히 고정될 수 없음을 다시 증명한다.

제인의 반복된 탈주가 실제로나 비유적으로나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채 벌어지는 것은 제국의 폭력에 훨씬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로체스터를 비롯한 남성인물들에게도 적용된다. 자메이카에서 흘러온 부로 쌓아 올린 슌필드 홀의 화재로 로체스터는 유사죽음과 심각한 신체 훼손을 겪는다. 마데이라(Madeira)에서 무역중개상으로 부를 쌓은 제인의 삼촌, 그리고 인도에 선교사업을 하러 떠난 썬 존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 식민지 세 곳과 연루된 남성들은 제인을 공통분모로 공유하며 서로 “접선”으로 스쳐 지나가는 방식으로 연결망을 이룬다. 제국주의 경영의 행운과 폭력과 위협이 혼재하는 현실에서 자유는 그 한계를 노정하고,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면에서 『제인 에어』는 해방을 꿈꾸는 이야기가 아니다. 모두가 연루된 곳에서 억압은 해결될 수 없고, 다만 지배관계를 전유하고 재연하는 게임이 지속할 뿐이다. 다만 제인만이 존재를 걸고 단절과 탈주를 시도하고 또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제인과 로체스터가 펀딘(Ferndean)에 정착하는 결말은 차별화된 새로운 가정성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그 경계가 불확정적인 가정성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한 번 경계를 넘나드는 “끝나지 않는 기획”의 일부다.⁵¹

경계를 가로지르는 여성주체의 끝나지 않는 탈주는 근대 자아의 이상형인 가정여성이 끝없는 보충을 통해 유지된다는 것을 새삼 일깨운다. 가정여성은 한편으로는 규율권력에 따라 경계의 단속과 배제를 씨줄로 삼고

51 “unfinished business,” Rey Chow (1999), “When Whiteness Feminizes...: Some Consequences of a Supplementary Logic,” *differences: A Journal of Feminist Cultural Studies* 11(5), p. 163.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에 따른 상호성과 결속을 날줄로 삼는 역설적 존재이다. 제인의 문화자본 중 가장 강력한 자원은 쓰기다. 직접 신문에 가정교사 광고를 내서 로우드를 떠나고, 결혼준비로 들뜬 가운데 로체스터의 선물 공세에 불안감을 느끼며 잘 알지 못하는 삼촌에게 편지를 보낸 덕분에 결혼을 벗어날 계기를 만들고, 또 가명으로 신분을 속이고 무어 하우스에 머물면서 자투리 종이 모서리에 본명을 남기는 바람에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사소한 행위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는 이런 장면들은 그야말로 사소함에서 중요함으로, 주변에서 중심으로, 예측에서 독립으로 도약하는 제인의 운명을 환유하는 동시에 사소함과 중요함, 주변과 중심, 예측과 독립의 경계가 자의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시력과 오른팔을 잃은 로체스터를 위해 대신 읽고 쓰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영국 새 백과』와 『걸리버 여행기』를 읽는 등 마는 등 하던 제인의 분열적 수행성의 변주이기도 하거니와, 혹시 “희생하면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냐고 묻는 로체스터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무슨 희생이냐고 되묻는 장면이 암시하듯 끌림과 닮음과 상호침투의 에로스는 지배의 논리만으로는 다 해명할 수 없는 어떤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진실의 편린으로도 읽힌다.⁵²

『제인 에어』는 ‘나쁜 남자’가 이성애로맨스를 거치면서 적절하게 사회화되어 보편성을 연장할 기회를 얻는 여성화 경제를 당장 깨부수는 해방적 소설이 아니다. 다만, 여성(주체)화는 불완전한 반복의 지속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미래를 약속하는 소설일 수 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당연하게 전제하는 자아, 주체, 독립, 자유, 평등, 진보 등이 구성된 것이고 실체가 아니라 지배체제의 효과이고 비서구 여성을 재현하지 못하게 한다는 비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 비판의 핵심은 자아, 주체, 독립, 자유, 평등, 진보의 반대항이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아, 주체, 독

52 “Because you delight in sacrifice,” Brontë, 445.

립, 자유, 평등, 진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재현되지 않는 것, 불안정한 것, 분열하는 것, 보충되는 것에서 여성주체의 가능성을 읽으려는 시도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성화라는 “끝나지 않는 기획”과 계속 분투하면서 말이다.

참고문헌

자료

Brontë, Charlotte (1847), *Jane Eyre* (ed. by Margaret Smi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논저

Anderson, Amanda (2000), “The Temptations of Aggrandized Agency: Feminist Histories and the Horizons of Modernity,” *Victorian Studies* 43(1), pp. 43-65.

Armstrong, Nancy (2016), “One or Several Jane Eyre?” *Victorian Review* 42(2), pp. 215-242.

Armstrong, Nancy (2012), “Gender Must Be Defended,” *South Atlantic Quarterly* 111(3), pp. 529-547.

Armstrong, Nancy (2005), *How Novels Think: The Limits of Individualism from 1719-190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Armstrong, Nancy (1998), “Captivity and Cultural Capital in the English Novel,” *Novel: A Forum on Fiction* 31(3), pp. 373-398.

Armstrong, Nancy (1987), *Desire and Domestic Fiction: A Political History of the Nov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ossche, Chris (2005), “What Did *Jane Eyre* Do?: Ideology, Agency, Class and the Novel,” *Narrative* 13(1), pp. 46-66.

Buzzard, James (2005), *Disorienting Fiction: The Autoethnography Work of Nineteenth-Century British Novel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Chow, Rey (1999), “When Whiteness Feminizes...: Some Consequences of a Supplementary Logic,” *Differences: A Journal of Feminist Cultural Studies* 11(5), pp. 137-168.

Davidoff, Leonore and Catherine Hall (1987), *Family Fortunes: Men and Women of the*

- English Middle Class 1780-185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onaldson, Elizabeth (2012), "The Corpus of the Madwoman: Toward a Feminist Disability Studies Theory of Embodiment and Mental Illness," *The Madwoman and the Blindman: Jane Eyre, Discourse, Disability* (ed. by David Bolt et al.), Columbus: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pp. 11-31.
- Douglas, Ann (1977), *The Feminization of American Culture*, New York: Avon Books.
- Freedgood, Elaine (2006), "Souvenirs of Sadism: Mahogany Furniture, Deforestation, and Slavery in *Jane Eyre*," *Ideas in Things: Fugitive Meaning in the Victorian Nove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30-54.
- Gilbert, Sandra and Susan Gubar (1979),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Griffin, Ben (2012), "The Domestic Ideology of Victorian Patriarchy," *The Politics of Gender in Victorian Britain: Masculinity, Political Culture and the Struggle for Women's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7-64.
- Gunn, Simon (1986), "The Failure of the Victorian Middle Class: A Critique," *The Culture of Capital: Art, Power and the Nineteenth-Century Middle Class* (ed. by Janet Wolff & John Seed),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p. 17-43.
- Kaplan, Amy (1998), "Manifest Domesticity," *American Literature* 70(3), pp. 581-606.
- Kaplan, Cora (1996), "'A Heterogeneous Thing': Female Childhood and the Rise of Racial Thinking in Victorian Britain," *Human, All Too Human* (ed. by Diana Fuss), New York: Routledge, pp. 169-202.
- Kaplan, Caren and Inderpal Grewal (1994), "Transnational Feminist Cultural Studies: Beyond the Marxism/Poststructuralism/Feminism Divides," *Positions: Asia Critique* 2(2), pp. 430-445.
- Makdisi, Saree (1998), *Romantic Imperialism: Universal Empire and the Culture of Moder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Kee, Patricia (2009), "Racial Strategies in *Jane Eyre*," *Victorian Literature and Culture* 37(1), pp. 67-83.
- Meyer, Susan (1990), "Colonialism and the Figurative Strategy of *Jane Eyre*," *Victorian Studies* 33(2), pp. 247-268.
- Parry, Benita (1987), "Problems of Current Theories of Colonial Discourse," *Oxford Literary Review* 9(1/2), pp. 27-58.
- Pitts, Jennifer (2005), *A Turn to Empire: The Rise of Imperial Liberalism in Britain and Fr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oovey, Mary (1988) "The Anathematized Race: The Governess and *Jane Eyre*," *Uneven Developments: The Ideological Work of Gender in Mid-Victorian Englan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26-163.
- Robbins, Bruce (2003), "Soul Making: Gayatri Spivak on Upward Mobility," *Cultural*

- Studies* 17(1), pp. 16-26.
- Samalin, Zachary (2021), *The Masses Are Revolting: Victorian Culture and the Political Aesthetics of Disgus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pivak, Gayatri (1999),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Toward a History of the Vanishing Pres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pivak, Gayatri (1988),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 by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Urbana Champagn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p. 66-111.
- Spivak, Gayatri (1985) "Three Women's Texts and a Critique of Imperialism," *Critical Inquiry* 12(1), pp. 243-261.
- Vickery, Amanda (1993), "Golden Age to Separate Spheres?: A Review of the Categories and Chronology of English Women's History," *The Historical Journal* 36(2), pp. 383-414.

원고 접수일: 2022년 10월 10일, 심사 완료일: 2022년 11월 8일, 게재 확정일: 2022년 11월 8일

ABSTRACT

Unfinished Business of Feminization

Cho, Sonjeong*

Domesticity and Empire in *Jane Eyre*

This essay presents a reparative and nuanced re-reading of Charlotte Brontë's *Jane Eyre* with a focus on fluidity, mobility, and permeability of its protagonist to illuminate the dynamic configuration of feminine subjectivity, never given as a fixed identity, rather enacted through the repetitive imperial performativity. Observing that the distance between domestic space and remote empire is constantly recalibrated in the novel, this essay argues that subjectivity its heroine, forced to be mired in such recalibration, continues to take a risk for drastic disengagement and escape. While resonating with both Gayatri Spivak's postcolonial critique of the novel's imperial complicity and Nancy Armstrong's criticism of domestic ideology, the essay endeavors to contextualize their intersectional critical interests under the rubric of 'feminization.' The essay analyzes the ways in which liminality and hybridity are represented relentlessly to unsettle the boundaries of binarism between home and empire, which leads to reevaluate the politics of feminization and its discontents and also helps expanding the discussion on the complex nexus of gender and

*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 in literary discourse and beyond.

Keywords Imperialism, Postcolonialism, Subjectivity, Feminization, Domesticity

